

日本 植民地時代의 景觀概念語 研究

-六堂의 [朝鮮의 山水]에 나타난 景을 중심으로-

鄭夏光

嶺南大學校 大學院 造景學科 博士課程

A Study on the Use of the Word "Kyoung" of Choi Nam-Sun

Jung, Ha-Kw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cept formation and classify the diverse concepts which related to Kyoung(景) of Choi Nam-Sun at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history)

The cultur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was aimed at the destruction of Korean nationalism and racial consciousness and the rapid Japanization of the Koreans. In the name of assimilation, Korean language instruction was first simply discouraged while the movement for the use of Japanese was stepped up, the use of the Japanese language was forced upon the Koreans, and textbook revision was carried out in order to develop Shinto nationalism and loyalty to the emperor and the stat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type of landscape concept was 10 types and had the following frequencies in order; Pung-Kyoung(風景)(42), Kyoung-Chi (景致) (21), Koang-Kyoung(光景)(8), Kyoung-Sung(景勝)(7), Kyoung-Gae(景概)(5), Kyoung-Goan(景觀)(2), Sung-Kyoung(勝景)(2), Kyoung(景)(2), Sil-Kyoung(實景)(1), Pung-Kyoung-Goan(風景觀)(1). Types of landscape concepts in critical periods were classified into 10 according to the many characteristics; personal situations, cultural policy and education policy of Japanese.

1. 序 論

언어는 구두 의사소통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기호와 함께 기록으로 미래세대에 현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호(언어)를 통해 景觀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사상을 전달하는데 전달과정을 통해

전달된 의미가 타인들에게 동등하게 인식되면 그것은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의미로 남아 共有하게 되며, 이렇게 共有된 의미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單一의 기호를 사용하며, 사용된 기호는 그 문화의 특성을 대표하며, 사용상 하나의 규칙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景觀"은 지각하는 사람마다의 경험, 감정, 지난날의 기억, 상상, 현재 상황이나 의도 등에

따라 아주 다른 방법으로 인식되며, 어떤 기호(언어)가 다른 기호(언어)관계속에 接合되거나, 다른 기호(언어) 사용자에 의해 구사될 경우 送信者의 선입견, 표현모호성, 내용모호성, 聽者의 선입견, 우발적 附加意味, 그리고 解釋의 失敗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기호와 그 의미가 변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과 시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景觀개념의 형성과정이 경험적일뿐 아니라, 특히 역사적으로 장기간 동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던 명사가 문화의 전파와 상호 수용과정에서 交叉, 습합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며, 類似개념과 混亂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되는 轉換期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內的, 外的 충격으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게 되며, 기존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체험하게 됨^{17,18)}으로 인하여 전통적 의식구조 및 가치체계가 흔들리고⁹⁾,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동시에 언어(기호) 사용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 언어(기호) 사용은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1970년대 初 “造景學”이라는 학문이 도입되면서 “景觀”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많아졌고, 관련 학문의 급진적 발전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용용어의 정립이 진행되어 왔으나, 급속한 서구문화의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용어사용의 급속한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및 문헌에 대한 용어사용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관련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와같이 景觀관련 용어사용의 構造的 부작용은 한국사회구조의 변화과정에 있어 앞으로 몇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景觀용어의 사용방향이 앞으로는 보다 體系的이면서, 理念的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의 사회구조적 변동에 따른 景觀용어의 사용은 전통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어 文學적 基盤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조경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현대 조경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 外來 문화와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통경관개념어에 의한 景觀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의 景觀 해석과 용어의 정립이 내용의 분석에 대한 진지한 배려가 없이 지나치게 외국적,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景觀 해석과 용어의 정립 및 내용의 분석에 대한 전통적, 질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용어의 변경을 위한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외국의 이론을 信奉해서 적용한다든지 선진국의 경험을 모형으로 해서 그것을 모방하는 방식이 지배적이기에 모방적 또는 非主體的 변화는 한국사회의 조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景觀용어 변화과정에 있어서는 보다 主體的 입장에서의 景觀용어 선택과 결정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언어(기호) 驅使가 앞으로 다가올 언어(기호)사용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전통문화와의 상호 적응과정 및 그와 같은 변화 방향의 선택시기에 있어서의 사회적 조건 등이 보다 상세히 분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변화의 시점이 되는 전환기 시대의 景觀개념어 사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景觀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에 대한 근원과 원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

2-1. 分析資料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전반적인 시기동안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六堂 崔南善(1890-1957)을 택하였으며, 분석자료는 경관과 관련된 용어와 설명이 많은 「朝鮮의 山水」를 택하였다. 육당은 비록 문학가이나 우리나라의 古文獻의 기록자들이 대부분 조경가, 건축가, 도시계획가가 아닌 문필가 혹은 역사학자들이 그 사회의 현실상황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때 六堂의 「朝鮮의 山水」도 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된다. 六堂의 「朝鮮의 山水」는 강연집으로서 조선정신과 조선문화를 啓蒙할 의도로 十數年間 모인 草稿를 모아 1947년에 발간한 것으로 急轉해가는 世運에 대한 暗示를 江山에 부쳐 말한 것이다. 「朝鮮의 山水」는 一. 裏朝鮮의 名山, 二. 表朝鮮의 名山, 三. 朝鮮의 江河, 四. 朝鮮의 三海, 그리고 附. 滿洲의 風景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研究方法

본 연구는 앞선 논문¹⁰⁾에서 사용한 분석의 틀(개념 비교)을 사용하여 崔南善의 「朝鮮의 山水」에서의 “景觀”과 관련된 여러 용어(개념어)들의 사용빈도(출현회수)를 조사하며, 여러 개념어들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전환기 시대의 사용상 특성을 알아본다. 그 이유는 특히 일본식민지 시대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개인 혹은 사회가 그 용어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3. 研究史

景觀개념어에 대한 연구에는 몇몇의 학자가 있으나 대개가 현대적 의미의 연구 혹은 외국의 이론적 근거에 따른 연구가 초를 이루고 있고, 한국적 景觀개념어 사용과 의미부여에 대한 연구^{10,11)}는 적으며, 주로 여러 시기의 개인의 경관개념어 사용을 상호비교하였고, 개인의 사상적인 특성과 문장상의 구성 및 의미를 개념어의 사용과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대별 경관개념어의 특성과 사용언어의 흐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용된 경관개념어의 분석은 경관용어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崔南善의 역사논문에 관하여는 역사학자들이 언급하였고, 문학에 관하여는 문학자들이 여러모로 연구하고 검토한 바 있었으나, 그의 여러 기행문이나 그밖의 散文들을 통해 그 시대의 景觀개념어 사용과 해석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

4. 人物과 作品의 背景

六堂 崔南善(1890-1957)은 1890년에 태어나 청일전쟁, 을미사변 등 연달은 政變과 같은 어수선한 국내정세 속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한문과 일본어를 修學하였다. 여러 차례의 일본유학(1차는 露日전쟁이 발발한 1904년, 2차는 1906년)을 떠났고, 이 당시 그의 기본사상은 開化思想의 주류였던 漸進開化派 계열에 속하였다.¹⁹⁾ 그후 영어와 지리역사를 공부하였고, 李光洙 등과 함께 서구 러시아의 문학작품들을 탐독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의 시대적 覺醒을

위한 新文化 운동을 목격하고, 귀국하여 역사와 지리에 관한 중요한 책을 출판하고, 〈少年〉이란 잡지를 발행했다. 春園과 함께 애국문학, 啓蒙文學에 매진했으며, 1919년 3. 1 운동 때에는 독립선언문을起草하고, 잡지 〈東明〉을 발행하면서 국사의 연구에 몰두하여 민족적 주체意識의 확립을 목표로 많은 저서를 내었다. 그러나 1925년 총독부 朝鮮史編修委員職을 맡았으며, 뒤에 中樞院 參議를 지내고, 일본 關東軍이 만주에 세운 建國大學에서 4년간 교편을 잡았으며, 귀국 후 1943년 12월에는 在日 朝鮮유학생의 학병지원 권고 강연차 李光洙, 김연수, 李聖根 등과 東京에 파견되었었다. 이로 인해 8. 15 해방 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비난을 받았고, 〈韓國 歷史大事典〉을 집필하다가 중도에 병사했다.

開化期시대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六堂은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1,3, 12)} 六堂의 사상은 주체적 민족의식에 눈을 뜬 전통사상으로서의 후기 實學사상과 民間사상이 서양의 충격을 받아 점진 開化사상으로 피어났고, 이 開化사상을 이어받은 六堂은 이를 문화적 민족주의, 민족적 啓蒙주의로 확대 심화시켰으며,^{1,4)} 日帝의 식민지 통치가 본격화되자 다시 閉鎖的 민족주의인 '朝鮮主義'로 응결시켰다⁶⁾. 그러므로 六堂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朝鮮主義는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사명을 띤 한국의 特殊 民族主義인 동시에 跋行的 한국 근대사상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¹⁹⁾

5. 使用用語 分析

여러가지 중요한 경관적 관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함에 따라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우리가 지각한 것을 서술하고자 사용하는 언어 또한 변하게 되며, 경관의 표현은 지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언어로 형성된 용어로 해석되어 진다. 그러므로 언어의 사용관계는 지각자가 이용할 수 있는 言語的 範疇(the linguistic categories)에 달려 있게 된다.

日帝시대에 있어서는 문화침략의 일환으로 조선어를 추방하는 조선어 말살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은 국가와 국민의 一體의 기능을 天皇의 권위 아래 통합 歸一시키면서, 異端과 예외가 容認될 여지조차도 없는 철두철미한 동질화의 체제를 군사력의

토대 위에서 달성하려 했다. 이리하여 조선의 문화는 그 전면적인 解消를 통한 일본에의 완전무결한 歸化가 극력 強制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어 교육의 폐지, 문화, 출판 부문에서도 조선어 추방조치의 강행, 각종의 조선어 출판물의 폐간, 통합, 축소 등의 형태로 수행되었다.⁹⁾

六堂 崔南善은 그가 사용한 용어를 보면, 전통적 용어를 따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外來의인 용어를 시도하기도 하며 또한 전통적 용어와 외래적 용어를 變造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S字形으로', '一大 필름', '朝鮮의 라인', '프로펠러船' 등은 외래적인 용어의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의 일본어의 사용을 엿볼 수 있는데 '人生', '人間', '認識', '單語', '素材', '次元', '構成', '概念', '客觀' 등이 그 예이다. 여중동(1986)에 의하면 '人生'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살다'가 되며, '人間'이라는 말뜻은 '사람들 사이'가 되기에 사람들 사이란 곧 '세상(世上)'이라는 뜻이 되고, '認識'을 배달말에 옮기면 理會가 되는데, 지난날 우리 先儒들이 理會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는데, '理會'란 '알아서 깨달음'을 두고 일컫는 말이고, '客觀'의 '객(客)'이라는 글자는 나그네 객자이다. '나그네'란 주인이 있는 연후에 있게되는 것이므로 이 '객'자는 그 사용에 있어서 앞자리에 나서지 못하고 언제나 뒷자리로 돌려지게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뜻글자가 지니는 으뜸음을 저버린 채 함부로 사용하는 일본사람들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이 용어사용의 혼란내지 모호한 사용은 崔南善의 일생을 통해 엿보여지는 어릴때 부터의 일본어 修學, 일본유학, 漸進開化派所屬, 영어학습, 西歐 러시아문학 및 지리서적의 탐독, 新文化運動展開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전환기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혼란상황이 그의 용어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6. 景觀概念語 分析

6-1 關聯概念語 分析

六堂의 「朝鮮의 山水」에서 나타나는 景觀개념어를 분석해 보면 표-1에서 표-9까지와 같으며, () 속의 숫자는 쪽수(page)이다.

光景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1과 같으며, 光景의 구성요소는 골짜기, 바위, 山, 灣(澤)의 자연물과 떠오르는 해와 같은 자연현상, 密林과 같은 생물, 그리고 밤에 고기잡이 하는 배의 모습과 같은 人間의 삶 등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지역적 공간적으로 한정된 부분에서 일어난 한정된 일부분의 모습(예를들면 ; 해 뜨는, 澤이 배포되어 있는, 밀림, 해상에 배들이 뜨있는)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光景의 대상은 문장에 포함되어 나타나며 예를들면, 해, 밀림, 바위, 澤, 바다와 같이 하나의 대상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물과 자연현상, 생물,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光景에서 '해 뜨는', '불반짝어리는', '깜박어리는', '불끈소사오르는' 등과 같이 視覺에 호소하면서 時間의 進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修辭語들은 현재의 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 黎明의 이른 아침과 어두운 밤으로 빛의 要素가 강하게 知覺될 수 있는 時間이다. 比喩로는 밀림지대를 바다에 비유해 '樹海'로 표현하였으며, 서있는 바위의 모습을 擬人化하여 사람이 마주 서있는 모습에 聯想시켰다.

〈表-1〉 光景에 대한 表現과 光景의 構成要素

修飾	構成要素	表 現	
썩달라 부른 위태한 늪흔, 나진	골짜군 바위들	比喩	위태위태한 바위들이 일면하면 니마씩이를 마조짜리려하는 光景을(10-11) 密林地帶의 光景을(105-106) 無窮無限한 光景입니다(113) 一大澤國이 배포되야 있는 雄大한 光景을(62-63) 아침에 해 뜨는 光景은(71) 긴 밤의 깜깜을 깨치고 똥그런 불거울이 불끈소사 오르는 光景은(71-72)
	山澤		
	해	비喩	불반짝어리는 바다는 마치 별이 깜박어리는 하늘과 光景을(93-94) 密林 樹海라 할 것의 光景이(107)
배 바다	배	視覺	
密林	密林		

風景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면 표-2와 같으며,

<表-2> 風景에 대한 表現과 風景의 構成要素

修飾	構成要素	表現	
커다란	늪		그 風景의 構成要素와 表現形態가(15)
峻	嶺 喬木 密林 白沙場		平壤의 風景은(59) 漢江 風景面의 작은 部分입니다(62-63) 주줄이 다하 있는 風景地帶입니다(62-63)
奇	岩	地域	朝鮮의 風景의 태뵈그로 나서면(28)
怪 大 長 重, 高 曠, 넓은 김흔 아름다운	石海 江峰 野(들) 골 개울 소	場所 美的	이 시원석직한 風景이(12) 白頭山 風景의(12) 圓滿充足한 風景美(47-48) 그 風景美는(52) 그 絶勝한 風景만으로(53) 一方風景의 焦點으로(54) 風景의 要素에(66) 獨特하고 卓越한 海山 兩合의 風景構成에(69)
붉은	가	複雜	山野江海의 風景이 자못 複雜함을 생각하면(101) 滿洲全土의 風景이(101) 風景上으로 觀察할(101) 地勢의 條件에 따라 風景의 要素가 몇개 特異한 部分으로 난호여있습니다(102)
四時長靑 자락을 살고	松栢나무 흰구름	部分 同一	同一한 風景圈內에 屬함(104) 滿洲의 風景의 자랑(111-112) 滿洲의 代表的 風景(111-112) 明媚秀麗와 闊遠雄大를 兼한 風景構成은(58)
和答하매 絶 長 긴 감직한	새 壁 城 숲 山	記憶	山水風景에 대한 過去의 記憶까지를(28)
斷 長 曲 滄茫한	시내 암록강 개울 汀 浦 大海	回顧 視覺	風景으로도 얼마나 탁월(54) 山水風景이 冠絶하야(29-30) 산악지대의 風景(111-112) 山水風景의 지극한 趣味(23) 불만한 風景이(50) 昭曠明媚한 風景한관이 눈앞에 버티지게(65)
감안앉는	山 滿洲平野	中心	각각 한 풍경의 焦點(62-63) 상식화한 風景을(17-18) 이 風景構成의 要素는(42) 여러가지 風景要素를(41-42) 작을 차치내기 어려운 滿洲風景은(111-112) 一大風景일(111-112) 偉大한 風景의(114-115) 一特異한 風景區가(114-115) 風景의으로 意味를(114-115) 風景은 多分으로 一般性的의 것이기로(114-115)
놓하진 세여난 움죽이는	山 滿洲平野 요동반도 물 風月	比較 一般	滿洲風景의 정적방면만 말고 그 동적사실(114-115) 滿洲의 風景構成과(116) 大陸의인 이 風景은(116) 風景의 要素가(102)
아름다운 높은 넓은 奇異한	石壁 盤石 선바위	動的	

風景의 구성요소는 늪, 嶺, 白沙場, 岩, 石, 골, 山, 바다(海), 江, 峰, 野, 개울, 소, 絶壁, 시내, 岸, 汀, 浦, 水, 石壁, 盤石, 바위 등의 무생물, 구름과 溫泉 같은 자연현상, 그리고 꽃, 새, 나무, 喬木密林, 숲과 같은 생물, 城과 같은 인공적인 요소가 있다. 風景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분리된 상태에 있지않고 ‘겹쳐야 있는’, ‘이全體의’, ‘큰 畫幅처럼 펼쳐’, ‘S字形으로 곱들어지는 동안에’, ‘차례차례로 둘러서’, ‘扶餘八景으로 들린’, ‘一大’, ‘一方’, 그리고 ‘주줄이 다하 있는’과 같이 나열의 의미 혹은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성체가 되거나 여러요소들이 兼해 있어야 風景美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風景은 ‘滿洲全土의 風景’, ‘滿洲風景’, ‘大陸의인 이 風景’, 산악지대, 광야지대, 반도지구 등의 지역성을 나타내며, ‘地勢의 條件에 가라 風景의 要素가 몇개 特異한 部分으로 난호여 있습니다’, ‘同一한 風景圈內에 屬합니다’, 그리고 ‘內四郡은 무릇 漢江 風景面의 작은 部分입니다’, ‘地域은 심히 좁지마는 一特異한 風景區가 있습니다’에서와 같이 풍경은 일정한 작은 구역으로도 나누어 질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잠겨있음을 곱업면’, ‘눈앞에 버티지게 됩니다’, ‘바라보고’, ‘불만한’ 등과 같이 시각에 호소하며, ‘붉은 솟, 누른 입사귀 乃至 四時長靑의 松栢나무, 흰구름이 긴치마 자락을 살가고 그윽한 새가 괴이한 노래를 和答하매’에서 알 수 있듯이 색과 청각을 표현하고 있다. 위치와 거리감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볼 수 있는데 ‘여귀’, ‘거귀’, ‘江上에’, ‘絶壁우에’, ‘숲밭게는’, ‘들밭게는’, ‘江外에는’, ‘떨리는’, ‘갓가히는’ 등이 그것이다. 각 요소들이 펼쳐진 모습을 마치 큰 화폭이 펼쳐진 모습에 비유하였고, 길게 드리워진 흰구름을 긴치마자락에 비유하였다. 風景은 다분히 一般的(一般性)이며, 靜的 혹은 動的인 면도 포함하고 있다. 風景의 集點은 ‘三水의 洗劍亭, 渭原의 鎮北樓, 楚山의 三松亭, 義州의 銃軍亭가튼 네부터 一方風景의 焦點으로 치는 곳’, 그리고 ‘龜潭, 島潭, 舍人巖 등은 각각 한 風景의 焦點’에서와 같이 亭과 樓와 같은 인공적 요소, 潭, 峰, 巖 등과 같은 무생물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집점의 대상은 그 風景을 구성하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중심성)를 점하는 곳이며, 명명에 의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景觀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3과 같으며, 景觀요소들은 바다(海), 江, 峰, 들(野), 山 등의 자

연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집합으로 이루어진 종합의 상태가 되어야 景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눈알에 거두어 가지는’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고, ‘남대에 업는 特異한’, ‘金剛山과 雪嶽에 比하야’와 같이 다른 장소와의 비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表-3〉 景觀에 대한 表現과 景觀의 構成要素

修飾	構成表現	要素	
大 長 重 曠	海 江 峰 野 山	視覺 比較	한 눈알에 거두어가지는 偉대한 景觀을(41-42) 比하야 獨特한 景觀을 구성해 가진(17-18) 남대에 업는 特異한 景觀이(103)

景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문장을 분석해 보면 표-4와 같으며, 경치의 구성요소는 石山, 沼, 瀑布, 溪谷, 봉우리, 바위벼랑과 골 등의 자연물, 달과 해와 같은 자연물, 그리고 소나무와 같은 생물이 있다. 특히 산, 물, 달, 해 따위의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景致라 하였다. ‘새벽나달, 저녁해’에 나타나는 시간적 요소, ‘긴가락 저른가락을 다토타와 和答하는’에서 나타나는 청각적 요소, ‘절썩가발이 景致’와 같이 의인화하여 사람에 비유하여 인식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남대에 업는 特異한’에서와 같이 비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낫낫치 세여보면’ 혹은 ‘삿삿치 景致있는 것을 뒤져내여서 이름을 짓고’와 같이 경치는 세어 볼 수 있는 數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 대상물을 지칭할 수 있고, 명명을 통한 상징성을 부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景致는 자연의 일부분만이 탁월하고 아름답다면 조화를 갖는 자연의 모습은 되지 못한다.

勝景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문장을 분석해 보면 표-5와 같으며, 구성요소는 폭포, 못(담) 등의 물(水)과 관련된 요소이며, 佛日瀑과 龍潭潭과 같이 시각으로 감지된 특이한 岩石들을 명명에 의해 상징화 하여 詩情과 畫趣와 歷史의 感興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勝景이라하였고, 앞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고 뒤에 뛰어난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경우, 그리고 구체적 사물의 뛰어난을 勝(뛰어

난)이라는 한문으로 통칭하여 불러 勝景이라 한다. ‘구경한 이의 눈에서 길이 살아지지 아니하는’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적인 면을 강조한다.

〈表-4〉 景致에 대한 表現과 景致의 構成要素

修飾	構成要素	表現	
커다란	石山		커다란 石山 덩어리로서 그의 景致는(23) 一種의 特色있는 景致를(102)
	물 새벽달 저녁해	時間	알마진 조화를 가지지 못함과 가튼 절뚝발이 景致, 일그려진 景致가(47-48)
二百尺의 높은	솔	比喩 聯想	景致노릇 못하여서(62-63) 두려, 의척,가 아우러진 滿點의 景致는(47-48)
七十里	溪谷 바위벼랑		山岳의 景致가 한 種類(15) 七寶山의 景致가(15)
깊은	골 시내물 소		거기물로 생긴 景致가(15) 景致가 絶勝함으로써(18) 雪岳의 景致를 낫낫치 세여보면(24-25)
	폭포 七瀑 十二瀑	比較	景致로 보담도(17-18) 萬物草에 比할 景致로서(14) 景致의 價値으로써(61) 景致로는(40, 62-63)
쏘쳐 떠러지는 玉連을 느러 세운듯한 石筍을 들러친	大乘瀑布 鳳頂 五藏 峰巒	命名 象徴	볼 수 없는 景致가(24) 景致로 볼것은 아닐줄(50) 구구한 景致는(52) 그만 景致는(40) 물로 생긴 景致도 어디보담 못한 것이 업습니다(47) 삿삿치 景致있는 것을 뒤져 내여서 이름을 짓고(37)

〈表-5〉 勝景에 대한 表現과 勝景의 構成要素

修飾	構成要素	表現	
奇壯함 神秘함	폭포 佛日瀑 龍潭潭	感興 觀賞 視覺	구경한 이의 눈에서 길이 살아지지 아니하는 勝景은(26) 곳업는 勝景속에 詩情과 畫趣와 及至 歷史의 感興을 마음껏 觀賞하든 자미에(55)

景勝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6과 같으며, 景勝의 구성요소는 曲, 샘, 폭포, 절벽, 호수,

섬의 무생물 요소와 습, 물새 등의 생물요소 등이며, 十二曲과 三島에서 사용된 12수는 十二支와 1년 12 달을 상징하는 관념적인 수이며, 3은 三神을 상징하여 仙山과 가튼 三島와 呼克圖는 삼신사상과 종교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景勝은 ‘十二曲이란 것이니’, ‘湖岸一帶에 드문드문 잇고’에서와 알 수 있듯이 전체지역에서 차지하는 것은 十二曲, 三島, 白岩, 呼克圖 등의 일부분이다. 景勝은 ‘경치가 뛰어난’이라는 외심형 구조의 축약된 형태의 명사로 볼 수 있으며, 景致를 강조하기 보다는 자연의 모습이 뛰어난을 강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表-6> 景勝에 대한 表現과 景勝의 構成要素

修飾	構成要素	表現	
세줄기	十二曲	部分 比較 思想 宗教 命名	그 奇異한 景勝은(43) 景勝이 湖岸一帶에 드문드문 잇고(110) 長壽山의 景勝의 構圖中에(43) 山水泉石의 景勝에는(62-63) 그 景勝의(62-63) 景勝의 角度에서 보아도 (65)
큰	斷層		
고은	湖水		
뚝뚝한	山水泉石		
仙山과	습		
가튼	三島		
奇	水鳥		
	白岩		
	呼克圖		
	섬		
	폭포		
	江		

景概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7과 같으며, 景概의 요소는 江, 洞, 峽, 瀑, 溪, 봉오리와 벼랑, 골과 소와 하얀모래 바닥등의 무생물과 파란 나무습 등의 생물, 樓, 亭등과 같은 인공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계를 이루는 요소들이 보기조케 어우러져야지만 雄大하고도 美麗한 景概를 이룰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조케 어우러져서’, ‘遊覽登眺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엄지손가락을 씹음이’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大同江, 九泉洞, 翠屏峽, 龍淵瀑, 彩霞溪, 九龍溪와 拱北樓, 獨樂亭 등의 명명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實景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8과 같으며, 실경의 구성요소는 새, 松林, 그리고 千年묵은 枯木은 생물적 요소, 파도와 같은 자연현상, ‘波濤

싸소리가 澎湃하며 새가울고’에서 알 수 있는 청각적 요소, 그리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함으로써 동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다. ‘山이 문허지고 땅이 찌저지는 것가트니 이는 곳 千年묵은 枯木이 저절로 분질러지는 것이러라’에서와 같이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實景은 실지의 자연의 모습을 말한다.

<表-7> 景概에 대한 表現과 景概의 構成要素

修飾	構成要素	表現	
幽邃 奇壯 爽快	大同江	命名 視覺 比較 人工	江山의 景概를(58) 江岸 또 江上에 있는 景概로 말하면(65) 沿岸의 景概가 絶勝하지마는(88) 이르는 곳마다 雄大 하고도 美麗한 景概를 (75) 이 奇壯한 景概가 (62-63)
	九泉洞		
	翠屏峽		
	龍淵瀑		
	彩霞溪		
매여난 각가질린 김흔 맑은 하얀 파란	九龍溪		
	拱北樓		
	獨樂亭		
	봉오리		
	벼랑		
	골		
	소		
	모래바닥		
나무습			
	沿岸		

<表-8> 實景에 대한 表現과 實景의 構成要素

修飾	構成要素	表現	
	松林	聽覺 視覺	大窩巢의 實景을 (105-106)
	波濤소리		
	새		
	枯木		

景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9와 같으며, 景은 특정지역에 대한 아름다움을 다른것과 구별되게 이름을 붙일 경우, 즉 명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한정된 갯수를 통해 어떤 지역의 경관을 더욱 강조하고자 의도하여 基數(8)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扶餘八景, 關東八景과 같이 ‘地名+基數+景’의 형태로 표현된다. 각 명승지역에 아름다운 곳을 몇개의 한정된 갯수로 지정하여 문인들에 의하여 수려한 곳을 명명하여 불렀다. 景에 사용한 숫

자는 인간을 중심으로 균형이 되게 하는 경우로 전체를 나타내는 象徴的인 의미나 觀念的인 숫자 8을 사용하였던 것 같다.

<表-9> 景에 대한 表現과 景의 構成要素

修飾	構成要素	表 現	
	부소산 낙화암 자은홀 대왕포	場所 基數 地域 命名	扶餘八景(65) 關東八景(75)

6-2. 出現頻度과 使用傾向分析

“朝鮮의 山水”에서 景觀과 관련된 각 개념의 출현횟수를 보면 표-10과 같으며, 단연 ‘風景’이 42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景致’ 22회, ‘光景’ 8회, ‘景勝’ 6회, ‘景概’ 5회, ‘景觀’ 3회, ‘勝景’ 2회, ‘景’ 2회, 그리고 ‘實景’과 ‘風景觀’이 각각 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朝鮮의 山水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風景과 景致의 출현빈도가 비슷한데 (24:20) 비해 滿洲의 山水에 대한 설명부분에서는 風景의 출현빈도(18)가 景致의 출현빈도(1)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는 조선의 自然에서는 風景이 필만한 요소와 景致가 필만한 요소가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반해 滿洲는 風景의 요소만을 갖게 되는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光景은 바다와 관련된 설명과 滿洲의 風景을 설명하는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景觀개념어가 나오는 곳은 주로 山과 江을 끼고 있는 곳이 많으며, 바다를 주제로 한 곳은 적다. 이것은 六堂 崔南善이 바다에서 山으로의 主題方向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주체적 국가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상적인 면도 내포되어 있는데 六堂의 한국 자연에 대한 주체적 가치관이 엿보인다.

특히 景觀용어의 사용을 살펴보면 造景學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인 ‘景觀’은 日本에서 먼저 사용하였는데 ‘景을 보다’라는 동사적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 모호한 사용을 볼 수 있는데 ‘風景觀’으로 이 용어는 ‘風景을 보는 觀點’의 약어로 생각된다. 그리고 순서의 혼동 그렇지 않다면 ‘명사 + 동사’, ‘형용사 + 명사’의

두가지 구조로 보아야 할 ‘景勝’과 ‘勝景’은 우리의 규칙적 전통한문 구조와는 다른 낯선 용어의 모호한 사용이다. 명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勝景’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表-10> 「朝鮮의 山水」에 나타난 景觀關聯 用語와 出現頻度

	裏朝鮮의 名山	表朝鮮의 名山	朝鮮의 江河	朝鮮의 三海	滿洲의 風景	
景			1	1		2
風景	5	5	13	1	18	42
景致	9	3	9		1	22
光景	1		1	3	3	8
景勝		2	3		1	6
景概			3	2		5
景觀	1	1			1	3
勝景	1		1			2
實景					1	1
風景觀		1				1
	17	12	31	7	25	92

7. 分析의 結果

먼저 景觀개념어 사용을 앞선 논문^{10,11)}과 비교해보면 표-11과 같이 사용된 용어의 출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써 ‘景’을 중요시하여 사용했다는 공통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景觀”이라는 용어가 六堂에게서 출현하기 시작했다.

六堂의 「朝鮮의 山水」에서 나타난 景觀개념어의 사용과 개념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보면 표-12와 같다. 가장 일반적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혹은 인간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는 한 단어로 된 ‘景’을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景의 모습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경우 다른 것과 구별하고자 할 때는 景이라는 단어의 앞과 뒤에 적절한 용어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光景의 특성은 빛, 은유, 연상으로 특징지워지며, 보고 느낀 대상자체라기 보다는 다른 대상을 연상을 통해 끌어들이는 경우(예를 들면 사람의 모습, 국가, 둥그런 거울, 별밤하늘,

바다)에는 光景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風景의 특성은 지역에 대한 장소성, 지세의 조건에 따른 구분이 강하게 나타나며, 동적 그리고 정적개념을 동시에 갖는 특성이 있으며, 미적인 면, 구성적인 면, 그리고 중심성을 갖는다. 그리고 風景은 넓은 범위의 대륙적 특성을 지녔다. 그리고 風景美, 風景構成, 風景要素, 風景面, 風景地帶, 風景圈, 風景區 등의 복합명사로 사용가능한 특성을 지녔다. 景觀의 특성은 포괄성, 현재의 시각적 한계성(한정성)을 갖는 것이다. 景致的 특성은 조화성, 명명성(상징성)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景致는 산악국으로 지형의 변화가 많은 계곡적 특성을 지녔고, 범위가 좁다. 勝景의 특징은 명명성(상징성)을 갖고, 시적 감흥, 회화적 정취와 역사적 감흥을 느끼게 하는 특성을 지녔다. 景勝의 특징은 명명성(상징성)을 갖고, 사상적인 면, 종교, 문화적인 면을 갖는다. 勝景과 景勝은 결국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역사성, 종교성을 전달할 정도의 아름다운 경의 모습을 통칭하여 불렀다고 생각된다. 景觀은 광범위와 시각적인 면만을 강조할 경우에 사용하였다. 景概는 시각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景物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그리고 개념간의 상호관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光景과 景概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면 ‘높은 山 나진 山이 겹겹이 둘러친 中에 江도 湖水도 바다도 아닌 一大澤國이 배포되어야 잇는 雄大한 光景을 보고. 이 奇壯한 景概가’에서 알 수 있듯이 景概는 光景의 구체적 사물, 山과 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光景과 實景의 관계는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광경은 빛과 관계된 모습을 실경은 수림과 관계된 모습을 이야기하기에 그 대상에 있어서 다르다. 풍경과 경관의 관계는 ‘思皇峰은. 그 絶頂에 올라가보면 大海와 長江, 重峰과 曠野, 이 여러가지 風景要素를 한 눈알에 거두어가지는 偉大한 景觀을 對하시고는’에서 알 수 있듯이 風景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와 높이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어야 景觀이 된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시각적 범위는 風景보다 景觀이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風景과 景致的 관계는 風景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가 景致일 수 있으며, 景致는 부분을 이룬다면 風景은 부

분의 나열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表-11> 使用用語의 比較

	景風暮景眞麗清景佳光勝實景景景景 景景致景景景物景景景景觀勝概者
鄭澈	0 0 0
朴仁老	0 0 0 0 0 0
尹善道	0 0 0 0
李重煥	0 0 0 0
崔南善	0 0 0 0 0 0 0 0

<表-12> 「朝鮮의 山水」에 나타난 相關 景觀概念語의 比較

	景風光勝實景景景景 景景景景觀勝致概
空間概念	
物的概念	
自然概念	
生物概念	植物 0 0 0 0 0 動物 0 0
無生物概念	自然現象 0 0 0 山 0 0 0 0 0 0 0 水 0 0 0 0 0 0 0
人工概念	人間の 畵 0 人工物 0 0 0 0 0
場所概念	場所 0 0 地域性 0 0
關係概念	部分 0 0 0 羅列 0 集合, 總體 0
數量概念	
基數概念	0
序數概念	
時間概念	
動的概念	0 0
靜的概念	0 0 0 0
質的概念	
價值概念	0 0 0
客觀概念	
客觀概念	具體性 0 思想 0 事實性 0 歷史性 0 宗教 0
心理概念	
美的概念	色 0 0 美 0 複雜性 0

		景風光勝實景景景景	景景景景觀勝致概
認識概念	—— 調和性		0
	—— 同一性	0	
	—— 比喩	0	
	—— 聯想	0	0
	—— 命名	0	0 0 0
	—— 象徵性	0	0 0 0
	—— 比較	0	0 0 0 0
	—— 感興	0	
	—— 詩情	0	
	—— 畫趣	0	
知覺概念		0	0 0
感覺概念			
視覺概念		0 0 0	0 0 0 0
聽覺概念		0	0 0

8. 結 論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형성하고 감정을 유발 시키며, 意志의 행동을 인도하는 힘이 있다. 언어란 사회성을 반영하면서 생겨나고 所失되면서 變遷해가고 있기 때문에 社會的인 產物이라 하겠다. 따라서 말(言語)은 社會와 時代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六堂의 「朝鮮의 山水」에서 나타난 용어의 사용을 보면 風景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景致, 光景 등이 사용되고 있다. 景觀이라는 용어는 이 당시에는 그 중요성이 미약하였다. 아름다운 자연물 혹은 시각적 아름다움의 초점이 되는 인공물과 그 주변의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景이라는 단일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風景과 景致가 오랜 세월동안 자주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그 단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新造語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주관적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 적합한 수식어를 붙여 명사화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死語 역시 개인에게 있어서 혹은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언어의 사용이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조시대는 시각적인 모습보다는 의미와 뜻을 중시하여 강조하고자 그러한 사항을 강조할 수 있는 용어(예를들면, 眞景과 淸景)를 적절히 사용하였고, 현재와 같이 뜻과 의미보다는 시각적인 모습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용어(예를들면, 景觀과 光景)를 사용하였다.

參考文獻

1. 金時泰(1981) “六堂의 文學觀”, 崔南善과 李光洙의 문학, 申東旭, 새문사
2. 金英大(19 “設計過程에 있어서 概念의 形成에 關하여”, 嶺南大 環境研究 6(2): 121-134
3. 金學東(1981) “新體詩와 六堂의 선구적 위치”, 崔南善과 李光洙의 문학, 申東旭, 새문사
4. 朴喆熙(1981) “崔南善 時調의 正體”, 崔南善과 李光洙의 문학, 申東旭, 새문사
5. 서정범(1986) “6. 25 이후 사회상을 반영하는 말들”, 전통문화, 6월호: 49-53
6. 신동욱(1981) “최남선의 산문과 민족관”, 崔南善과 李光洙의 문학, 申東旭, 새문사
7. 여중동(1986) “국어사전에 버젓이 실려있는 일본말”, 전통문화, 8월호: 72-75
8. 李弘植(1984) 國史大事典, 三榮出版社
9. 임종국(1986) “일제시대의 문화침략”, 전통문화, 8월호: 37-45
10. 鄭夏光(1991a) “景觀概念語 使用方向 設定 (I)”, 韓國造景學會誌 19(1): 99-121
11. _____(1991b) 택리지에 나타난 경관개념어 분석, 造景研究集3, 嶺南大造景學科
12. 鄭漢模(1974) 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13. 趙容萬(1972) 우리나라 新文學의 草創期에 있어서 日本 및 西歐文學의 影響, 아세아 연구 15권 2호(통권 46호), 고대아세아문제 연구소
14. 曹秉玉(1968) 開化期の 先驅者-六堂의 少年時節과 文化活動-, 城南 11호, 城南高
15. 崔杞秀(1989) “現代 景觀 意味에서 照明해 본 韓國의 傳統景觀”, 韓國造景學會誌 17(2): 57-68
16. 崔南善(1947) 「朝鮮의 山水」

17. 洪承稷(1984) 價值志向의 變化, 韓國社會科學研究所: 71-91
18. 文化的 混亂과 價值觀의 問題, 새교육 16-5: 64
19. 洪一植(1981) “六堂의 生涯와 文學”, 崔南善과 李光洙의 문학, 申東旭, 새문社
20. 黃琪源(1989) “景觀의 多義性에 관한 考察”, 韓國造景學會誌 17(1): 55-68